

201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B형] •

국어 B형 정답

1	㉔	2	㉓	3	㉑	4	㉔	5	㉑
6	㉔	7	㉓	8	㉓	9	㉓	10	㉑
11	㉕	12	㉕	13	㉒	14	㉓	15	㉕
16	㉒	17	㉑	18	㉑	19	㉓	20	㉕
21	㉕	22	㉓	23	㉔	24	㉕	25	㉔
26	㉕	27	㉑	28	㉕	29	㉑	30	㉓
31	㉒	32	㉔	33	㉒	34	㉔	35	㉔
36	㉒	37	㉕	38	㉑	39	㉓	40	㉒
41	㉕	42	㉒	43	㉒	44	㉔	45	㉔

해설

[1~5] 화법

1. [출제의도] 면접의 준비 단계 파악하기

‘일상생활에서 ~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면접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은 면접관의 첫 번째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②는 두 번째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③은 마지막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

2. [출제의도] 면접자의 질문 유형 이해하기

면접관의 질문 중 [C]는 [B]로부터 얻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보충 질문에 해당하며, 취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특정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A, D, E는 면접자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진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이고, B는 지원자의 취재 능력이라는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는 ‘폐쇄형 질문’이다.

3. [출제의도] 면접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지원자가 면접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 기자로서 취재원에게 질문할 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질문을 구체화하여 정보를 수집한다는 평가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보기>의 취재 장면에서 신문에서 스크랩하고 분석한 내용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상자 한 명만을 취재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확인할 수 없다. 취재원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말이나 행동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확인하기

폐휴대전화에 금, 은, 구리 등의 귀중한 광물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러한 금속 자원을 폐휴대전화에서 추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스마트폰이 ~ 빨라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대가 ~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김 박사의 인

터뷰 내용을 통해 폐휴대전화에서 금, 은, 구리 등의 귀중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캠페인이 ~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내용 평가하기

1문단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 2문단에는 방송의 보도 내용이 드러나 있다. 또 3문단에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화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나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③ 도입부에서는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와 폐휴대전화의 재활용률이 낮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핵심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1문단의 ‘하루 여러분 ~ 자주 바꾸시나요?’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전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3문단의 ‘잘 보셨죠?’라는 질문은 1문단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문제 상황을 청중들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발표 내용의 일부를 도식화하여 보여준 부분은 없다.

[6~10]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구체화하기

‘(나)-1’과 ‘(다)’에서 양심적인 판매자(우수 판매업소)가 늘어난 이유가 여러 해례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우수 판매업소의 확산 유도’는 ㉔의 또 다른 내용으로 다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판매 금지 식품을 파는 업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정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② (나)-1에서 보호 구역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단속 요원의 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2에서 경미한 처벌 체계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2에서 가정에서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도 사고 유발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2에서 단속 소홀이 사고 유발의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단호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③은 ‘본론-2-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고, 세 문장이 ‘주장-근거-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서로 전개되었다.

[오답풀이] ①에는 주장과 근거는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 ②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④는 ‘본론-2-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역할을 담은 것으로 굳이 넣는다면 ‘본론-2-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는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보고서 쓰기

학생의 보고서는 ‘체험 장소와 목적(1문단), 오전과 오후의 체험활동 내용(2,3문단), 느끼고 깨달은 점(4문단)’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체험활동을 하기 전에 계획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체험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2,3문단에서 활용하고 있다(ㄱ). 1문단에서 체험활동의 장소와 목

적이 제시되어 있다(ㄴ). 2문단은 오전, 3문단은 오후에 체험한 내용 순으로 제시하였다(ㄷ). 2문단과 4문단 끝에 글쓴이의 느낀 점이나 깨달은 바를 언급하였다(ㄹ).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나)의 1문단을 보면, ‘지난 토요일에 역사 동아리반 친구들과 ~ 관광객들도 많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ㄴ). 또 2문단에서 글쓴이는 ‘신라 때 창건된 전통 사찰’과 ‘△△ 장군의 생각’, ‘고택’, ‘근대 문화유산’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내용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ㄷ).

[오답풀이] ㄱ: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ㄷ: (나)에서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치려면 서술어와 호응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시장님께’ 다음에는 ‘건의문을’ 혹은 ‘글을’과 같은 목적어를 추가해야 한다. ‘급히’라는 부사어는 ㉔에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우리말답지 않은 영어식 표현이므로 ‘생각을 했습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③ 2문단은 역사 문화 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례이고, 3문단은 역사 문화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시의 사례이다. 2문단과 3문단은 내용상 상반되므로 ‘또한’이 아니라 ‘하지만’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개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을 뜻하는 말이다. 문맥상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을 뜻하는 ‘개발’이 적절하다. ⑤ ‘방치’는 ‘내버려 둠’을 뜻하는 말이므로 ‘내버려두거나’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내버려두거나’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1~16]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적용하기

‘홀이불’은 [홀이불](제9항)→[혼이불](제29항)→[혼니불](제18항)로 되는 단어이다. <보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오답풀이] ① ‘뫼난이’는 [뫼난이](제9항)→[뫼나니](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② ‘부엌문’은 [부엌문](제9항)→[부엌문](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③ ‘색연필’은 [색년필](제29항)→[생년필](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④ ‘웃땀’은 [웃땀](제9항)→[웃땀](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ㄴ의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고, ㄷ의 ‘-대’는 ‘-더라’와 같은 의미로 쓰이므로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풀이] ㄱ. ‘꽤다?’의 ‘-대’는 [I]에 제시된 것처럼, ‘승우가 회사에서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을 드러낸다. ㄴ. ‘대대’는 [II]에 제시된 것처럼, ‘답다

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ㄷ. '잘하테'는 '잘하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로 옮겨 말하는 것이다.

13. [출제의도] 증의적 표현 이해하기

ㄴ은 '나'가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그'가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지, 아니면 '그'가 '나'와 '음악'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문장이다. 따라서 '그'와 '음악'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ㄱ은 '예쁜'이 '영화'와 '동생' 중 누구를 꾸미는지 모호하므로, '영화의 예쁜 동생' 또는 '예쁜, 영화의 동생'처럼 어순을 바꾸거나 첨표를 사용하여 '동생'을 꾸미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ㄴ은 비교 대상이 명료해지도록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음악을 더 좋아한다.'처럼 수정해야 한다. ㄷ은 '영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또는 '영수가 많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한다.'처럼 수정해야 주체가 명료해진다. ㄹ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왔다.'처럼 수정하여 전체 부정인지 부분 부정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ㄹ은 입을 동작이 진행 중인지 입은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명료하게 수정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합성어의 특성 이해하기

'마소'는 '말'과 '소'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가 없다.

[오답풀이] ① '어제'와 '오늘'이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없으나 '아주 최근이나 요 며칠 사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원래의 의미가 변화하였다. ② '안'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가 있으며, '사람의 안팎'으로 쓰일 경우에는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④ '세'와 '네'가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는 없다. ⑤ '술'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로, '술'의 'ㄹ'이 탈락하여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는 없다.

15. [출제의도] 간접 발화 이해하기

'뮤지컬 함께 보러 가자.'라는 화자의 발화는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한 청유문으로 표현되었으며,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반장의 발화는 평서형으로 표현되었으나,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는 지시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② 엄마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게임을 그만하라는 지시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③ 시어머니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으나, 우산을 들고 마중을 가는 게 어떠냐는 요청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④ 사장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수를 하지 말라는 주의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16. [출제의도] 중세(16세기) 국어의 특징 탐구하기

'(반조은) 거시라'는 현대어 '(반은) 것이므로'로 풀이되므로, 이때의 '-라'는 종속적 연결어미임을 알 수 있다. '-라'가 평서형 종결어미로 사용된 예는 'ㅁ춤이니라'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다'가 아닌 '-라'를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드러'는 '예게'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이

다. ③ '상히오디'는 '상하게 하지'로 풀이되므로 '-게 하디'의 의미를 지니는 사동 표현이다. ④ '몸을'은 '父母를'과 비교하면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⑤ '흠이'는 '호미'로 이어지지 않고 음절 단위로 끊어 적었다. 현대 국어에서도 '함이'로 표기되어 있다.

[17] 독서 원리

<출전> 홍석부, 『홍씨 독서록』

개관 : 이 글은 독서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한 글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으니 가치 있는 것을 가려서 읽어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17. [출제의도] 독서의 방법 이해하기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부분별했던 독서 태도를 반성하면서 좋은 책을 가려서 읽는 독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조언할 수 있는 말도 가치 있는 책을 가려서 읽어야 한다는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는 모든 책을 두루 읽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글의 내용과 상반된다. ③은 발췌문을 강조한 내용이다. ④는 책을 읽을 때는 통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⑤는 글을 반복하여 읽어서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8~20] 인물

<출전> 김영진, 『장기기억과 지식 표상의 종류』 (재구성)

개관 : 이 글은 인간의 인지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억의 종류에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으며, 장기 기억은 의미 기억, 일화 기억, 절차 기억, 점화, 조건형성이 있다. 이러한 기억들은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부호화해야 한다.

18. [출제의도] 서술 전략 파악하기

이 글은 기억을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고, 다시 장기 기억을 의식의 유무에 따라 5가지 종류의 기억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기 기억의 5가지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정보가 머릿속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부호화가 되어야 하는데, 불쾌한 사건이나 흥미로운 사실은 자동적으로 부호화된다고 한다. 4문단에 의하면 부호화 과정이 없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호화 과정이 없으면 기억 실패 혹은 망각으로 이어진 다.

[오답풀이] ①은 1문단에서, ②는 4문단에서, ④는 5문단에서, ⑤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고서를 쓸 때 어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노래가 연상되었다면, 이는 특정 단어가 단서가 되어 노래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화'에 해당한다. 조건형성은 반복된 연합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한다.

[오답풀이] ① 잠재의식과 관련된 용어들은 개념적 지식에 속한다. 그러므로 용어들을 떠올리는 것은 의미 기억에 해당한다. ② 친구와 보고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특정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일화 기억에 해당한다. ③ 다자를 능숙하게 치는 것은 연습을 통해 습

득된 기술이므로 절차 기억에 해당한다. ④ 어떤 특정 내용이 단서가 되어 꿈에서 본 장면이 떠오른 것은 점화에 해당한다.

[21~23] 예술

<출전> 김윤희, 『음악 기초 이론의 이해』 (재구성)

개관 : 이 글은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자리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음자리표에는 낮은 음자리표, 가운데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가 있으며, 모두 특정한 음(F3, C4, G4)을 기준으로 음이름이나 계명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2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3문단에서 5문단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음자리표의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오선의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오선, 낮은 음자리표, 가운데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등을 개념 정의하였다. ② 낮은 음자리표는 F3, 가운데 음자리표는 C4, 높은 음자리표는 G4를 기준으로 한다. ③ 2문단에서 문단 방식을 사용하였다. ④ 세 개의 음자리표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낮은 음자리표와 가운데 음자리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은 높은 음자리표이다.

[오답풀이] ①, ④는 3, 4, 5문단, ②는 2문단, ⑤는 1문단에 각각 나타난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가운데 음자리표 C의 중앙이 1번 줄에 걸려 있으므로 1번 줄이 C4가 된다. 이 C4의 위치를 기준으로 악보의 음을 'A3-C4-F4-G4(알파벳 음이름)'나 '라-도-파-솔(계명)'로 읽을 수 있다.

[24~27] 사회

<출전> 박준식, 『브랜드, 행동경제학을 만나다』 (재구성)

개관 :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학문인 행동경제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기존의 경제학이 전제하는 인간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휴리스틱'과 '손실 회피성' 등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손실 회피성으로 인해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풀이] ①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는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③은 3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④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정가와 이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함께 제시하면 정가가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은 제한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싸다고 인식하므로, 기준점 휴리스틱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광고는 감정 휴리스틱을 활용한 사례이다. ③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경제 행위의 기준점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26. [출제의도] 사례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최후통첩 게임의 실험 결과는 인간이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경제학 입장에서 A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B가 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거의 전부를 가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A들(㉔)이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것은 A가 B를 의식하여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며 선택한 관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를 가정하는 기존의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사 결정을 할 때 인간이 이성이나 합리성에 의존하여 판단한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경제학 입장이다. ② 기존의 경제학에서 많은 B들(㉕)을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려면, 약간의 이익이라도 생기면 A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야 한다. ③ ㉕의 행위는 인간은 철저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전제에 어긋나므로 기존 경제학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㉔는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인 행동을 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존재이다.

27.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알기

‘상정(想定)’은 어떤 정황을 가정하여 단정함을 의미한다. 토의할 안건을 내 놓음을 뜻하는 낱말은 ‘상정(上程)’이다.

[28~30] 과학

<출전> 여인형, 「엑상과당, 설탕보다 더 단 단맛의 유혹」(제구성)

개관 : 이 글은 단맛을 내는 재료로 널리 쓰이는 엑상과당을 설탕과 인공 감미료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엑상과당의 제조법, 성분의 감미도, 대사 과정 등을 소개하고, 설탕과 엑상과당을 비교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설탕을 기준으로 포도당과 과당의 단맛의 정도를 비교했으나,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는 설탕과 엑상과당의 단맛 차이를, 5문단에서 둘의 결합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② 2문단에서 엑상과당을 제조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③ 1문단에서 사람들이 당을 섭취해 온 방법을 소개하였다. ④ 4문단에서 포도당과 과당의 대사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2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렙틴이 분비되지 않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식사량이 늘어나게 된다. [오답풀이] ② 인슐린이 분비되면 렙틴 분비를 촉진하므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면 렙틴 분비도 증가한다. ④ 렙틴이 분비되면 그렐린의 분비량이 줄어들므로 렙틴과 그렐린의 분비량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주재료의 구성에서 ‘HFCS55’가 쓰인 [A]와 [C]가 [B]보다는 단맛이 강하다. [A]와 [C] 중에서는 수크랄로스가 쓰인 [C]가 단맛이 강하다. [오답풀이] ① [A]에도 화학 처리 과정을 거친 아스

파탐이 들어 있다. ② 설탕과 포도당도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④ 주재료만을 볼 때 단맛의 정도에서 [A]와 [C]는 같고, [A]와 [C]는 설탕인 [B]보다 강하다. ⑤ 보조재료만을 볼 때 설탕보다 단맛이 600배 강한 수크랄로스가 첨가된 [C]가 단맛을 높일 수 있는 효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A]가 높고, 포도당이 들어간 [B]가 가장 낮다.

[31~33] 현대시

(가) <출전> 박용래, 「월훈」

개관 : 이 시는 적막한 깊은 산속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월훈’ 등을 소재로 표현한 작품이다.

(나) <출전> 윤성택, 「산동네의 밤」

개관 : 이 시는 겨울 산동네의 밤 풍경을 관찰하여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이웃과의 유대감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는 ‘따스하게 안겨오는’ 등의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단한 산동네의 삶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따뜻한 시선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명사형과 서술형으로 행의 종결에 변화를 주었으나 그것이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화자는 장면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④ (가)에는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32. [출제의도] 시의 상황 이해하기

4연에서 노인의 발은기침 소리가 사라지면 노인을 대신하여 겨울 귀뚜라미가 벽 속에서 울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때를 지어 읊는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는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장면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며, 노인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② ‘노루꼬리’는 헤가 짧은 것을 빗댄 표현이다. ③ ‘바람도 없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집 안에서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 실제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여명’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며 비치는 빛을 의미한다. 시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 ‘어둠에 익숙한 이 동네’는 산동네의 삶이 ‘어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산동네 사람들의 힘든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화자의 안주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은 화자가 대상인 산동네를 관찰하는 부분이다. ③ ㉤은 ‘허물없이’ 산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을 ‘누군가에게 건너가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긍정적 존재임을 깨닫는 대목이다. ⑤ ㉡은 ‘불씨’를 달고 있는 산동네의 모습으로, 화자가 새로

운 시선으로 산동네를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36] 현대소설

<출전> 김소진, 「두 장의 사진으로 남은 아버지」

개관 : 이 소설은 성인이 된 아들이 자신에게 남아 있는 아버지의 사진 두 장을 보며 그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의 소설이다. 아들은 무능력하고 나약했던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아들은 초라하고 지친 아버지의 증명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맞서려고 했던 벽보 속의 아버지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며 삶의 위안을 얻고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이 소설은 과거를 회상하여 보여줌으로써 ‘나’가 벽보 속의 아버지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한 행위의 의미도 알려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의 진행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② 대체로 긴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③ 과거 회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현재형 시제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아들의 시각에서만 서술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장면의 특징 이해하기

[A]에서는 서술자가 틀사진 속 인물의 외양을 ‘건성 드문한 대머리, 움푹 꺼져 데꾼한 눈자위’ 등으로 묘사하였고, [B]에서는 인물이 유세장에서 겪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다는 복선을 찾을 수 없다. ② [B]는 서술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서술이 없다. ③ ‘아버지’에 대해 [A]에서는 주관적인 태도로, [B]에서는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⑤ [B]에서는 ‘아버지’와 다른 인물들 사이에 대결 의식이 나타나지만, [A]에서는 찾을 수 없다.

36.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나’는 아버지에게 야유를 보내는 벤치에 장수와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개표장에서 밤을 새우면서까지 아버지의 득표수를 점검한다. 이는 ‘나’가 아버지에게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득표수를 알려주지 않은 행동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나’는 ‘틀사진’을 보며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의욕이 없는 모습이라고 회상하고 있으므로 ‘나’가 아버지를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아버지의 ‘좋은 꿈’이 야기를 들으며 분단으로 인한 아버지의 아픔을 짐작하고 있으므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아버지의 선거 출마가 ‘당신의 운명’과 대결하려고 한 행동이라 짐작하고 있으므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삶이 벅할 때마다 ‘벽보 속의 아버지’ 사진을 보고 위안을 받고 있으므로, ‘나’가 아버지와 화해했다고 볼 수 있다.

[37~39] 교전시가

<출전> 윤선도, 「만홍」

개관: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갔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 은거할 때 쓴 전체 6수의 연시조이다.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을 자연과 속세를 지칭하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고, 한문투의 표현을 자체화면서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표현 방식 이해하기

이 시에서 '뽕집, 보리밭, 쫓늬물, 뽕, 강산' 등은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지칭하는 시어들이고, '그나름 너나름 일, 인간만스'는 세속적 가치를 지닌 의미의 시어인데, 이를 활용하여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점층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정서의 고조는 없다. ③ 계절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화자의 인식 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혼자 앉아 바라보는 먼 산이 말을 하거나 웃음을 짓지 아니해도 그리워하던 '님'을 만난 것보다 즐겁다. 따라서 화자가 인식하는 '먼 뽕'은 가까이하고 싶은 친화적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의 삶은 화자에게 자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살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에서 스스로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님들'의 세속적인 가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자연에 의거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

39.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한 파악하기

<보기>에는 작가가 수십 년 간이나 세속에서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고충을 겪은 뒤에 세속적 삶에 염증을 느껴 은둔의 삶을 추구했음이 나타나 있다. '하얏'은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유배와 낙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둔의 삶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소박하게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뽕집, 보리밭 쫓늬물'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② '님들'은 화자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이므로 정적들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④ 순 우리말의 아름다운 묘미는 '알마초, 슬금자' 등과 같은 어휘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⑤ '너나름 일'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비유하므로 화자가 겪은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이 있다.

[40~43] 교전소설

<출전> 이육, 「류광익전」

개관: 이 작품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주인공 류광익이 과거의 답안을 팔아 살아가는 처지를 그리면서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문제로 삼고 있다. 주제의식을 서두에서 간단히 소개한 다음 류광익의 행적을 서술하고, 작가의 별호인 매화외사의 말로 논평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구조이다. 류광익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과거 부정행위가 만든 부도덕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광익이 글 솜씨가 뛰어나다는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개의 사건을 요약하여 진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

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삼입된 시는 광익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④ 작품 전체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경시관과 감사 간의 대화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4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경시관은 감사와의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광익의 진술을 받으려고 그를 체포하려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매매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만큼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보여 준다. ② 광익과 같이 과거 답안을 대필하는 사람 외에 서사꾼처럼 글씨를 대신 써 주는 사람도 과거 부정행위에 동원되었음을 보여 준다. ③ 돈은 '이만 냥을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감사'는 권력을 가진 자로 유추할 수 있다. ④ 광익이 대가의 액수에 따라 답안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과체에 능숙했기 때문이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하기

(가)에서는 류광익의 집안 내력과 성장 환경 대신 매매 행위가 만든 세태에 대해 서술과 논평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외사씨'의 논평을 제시하여 전형적인 전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③ <보기>에서 '전개부에는 인물의 업적이나 잘못을 열거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류광익의 옳지 못한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된 (나)를 전개부로 볼 수 있다. ④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류광익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신이(神異)하거나 부정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조선 후기의 전(傳)임을 알 수 있다. ⑤ 류광익의 잘못을 통해 이익만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다)가 논평부에 해당한다.

43. [출제의도] 관용 표현 이해하기

'주인'은 아들의 과거 급제를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속담으로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인 이루면 된다는 의미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자기 일이 아주 급할 때는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면 모른 채하고 지낸다는 말 ④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말 ⑤ 겉으로는 양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 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44~45] 극문학

<출전>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개관: 오영수의 '갯마을'을 원작으로 하는 시나리오로 주인공 해순의 삶을 통해 삶의 근원인 바다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해순의 '떠남-회귀'를 통해 바다를 해순이 살아가야 할 운명적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해순이 상수가 사고를 당해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S#153에서 잊어버리고 나랑 단둘이

서 살자는 내용을 담은 상수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S#152의 성철의 대사 '바닷물이 배 안 타고 뿔탈 낚니까.....'에서 알 수 있다. ③ S#153의 해순이 상수와 한 대화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산에 올라갔습니더.'에서 알 수 있다. ⑤ S#152의 어머니의 대사 '니는 배타지 마라.'에서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장르의 특성 이해하기

S#168에서 해순이 상수를 땅에 묻고 흙을 밟는 모습은 상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 해순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해순도 떠나 힘겨운 상황이므로 성철의 대사 '형수 걱정은 마소.'는 어머니의 상심을 달래려는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② 상수는 산에서 해순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있으므로 해순이 상수의 마음이 상할까 상수를 의식하며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어처구니없는' 듯하면서도 지극히 동정적인 모습으로 해순을 본다.'에서 어처구니없이 하는 마음과 동정이 함께 나타나 있다. ⑤ '마구 우는 해순이지만 그 소리는 요란한 비바람 속에 잠겼음인지 들리지 않는다.'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